

Back to the beginning – Genesis – Sermon Notes

Title: “4. Creation day 6”

Scripture: Genesis 1:24-31

Date preached: January 25th 2026

Scripture: Genesis 1:24-31

24 Then God said, “Let the earth bring forth the living creature according to its kind: cattle and creeping thing and beast of the earth, *each* according to its kind”; and it was so. 25 And God made the beast of the earth according to its kind, cattle according to its kind, and everything that creeps on the earth according to it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26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ccording to Our likeness; let them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over the birds of the air, and over the cattle, over all the earth and over every creeping thing that creeps on the earth.” 27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28 Then God blessed them, and Go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over the birds of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s on the earth.”

29 And God said, “See, I have given you every herb *that* yields seed which *is* on the face of all the earth, and every tree whose fruit yields seed; to you it shall be for food. 30 Also, to every beast of the earth, to every bird of the air, and to everything that creeps on the earth, in which *there is* life, *I have given* every green herb for food”; and it was so. 31 Then God saw everything that He had made, and indeed *it was* very good. So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sixth day.

24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 그 종류대로 나뉘어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 다스리라 하시니라

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Review – Genesis 1:14-23

Over the past few weeks we have seen our awesome God at work. At some point in the distant past, (approximately 6000 years ago) God chose to act. And across six literal 24-hour periods of time (days) created all that we now see around us from nothing. Now, due to the curse that came from man's sin the world around us is marred. It is not in the perfect state that God originally intended. We are surrounded by disease, decay and death. But even in a fallen state there is so much to be awed and amazed by. The vastness of the heavens above us. The diverse range of fascinating plants and trees. The mind-boggling variety of animals, birds and insects. There really is so much that witnesses to the intelligence and creative genius of our creator God. Last time we looked at what God did on days four and five. Today we will look at day six, the final day of the creation week. But before we do that let us briefly review some of last week's highlights. Let's begin on day number four.

복습 - 창세기 1:14-23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았습니다. 먼 옛날 약 6 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행동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하루가 24 시간인 6 일에 걸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현재는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이 세상은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질병, 부패, 죽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경외감과 놀라움을 자아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활한 하늘, 다양하고 매혹적인 식물과 나무들, 다양한 동물 새, 곤충들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혜와 창조적 천재성을 증명합니다. 지난 주에는 하나님께서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하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조 주간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내용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넷째 날부터 시작해 볼까요?

Day 4

On day number four God devoted Himself to filling the heavens. An area we would refer to as “space” or “outer space” today. He first created two heavenly bodies that would go on to play a vital role in regulating and maintaining life on the Earth. These were the sun and the moon. The sun is rightly identified as being the greater and the moon the lesser of these two “lights.” This is reflected in both their physical sizes and the significance they play in the universe. The sun is by far the largest thing in our solar system.

The scriptures go on to tell us that they were designed to fulfil a number of different functions. Here in Genesis we are given four. They divide the day from the night, they help us determine seasons, days and years and also most obviously serve as light sources. As I pointed out last time the sun is actually the source of light and the moon merely reflects sunlight.

God didn't stop however when the sun and moon were set in place. In what has got to be one of scripture's most understated sentences we are told that, **He made the stars also**. As I explained last time in some detail this was hardly a small task. Astronomers have no way of accurately counting the number of stars that exist. There is a limit to how far we can peer into space. The deeper we are able to look the more stars we discover. Space doesn't seem to end! But we do know that it's an astronomical number. I quoted last week the number of stars existing at an estimated 10 to the power of 22. That is a 1 followed by 22 zeros! To those like me who are hopeless at mathematics let me explain simply. That's a VERY big number. Here's something else for you to ponder. In Psalm 147 we read the following.

He counts the number of the stars;

He calls them all by name.

(Psalm 147:4)

Isn't that an amazing thought. Not only did God speak all the stars into existence but He also individualised them by naming them all. You are Jane, I'll call you Steve and the little one over there is Bob.

When God surveyed all that He had done He declared it to be good and day four came to a close. Let's now briefly cover what happened on day five.

넷째 날

창조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을 채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주" 또는 "외계 공간"이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두 천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해와 달입니다. 해는 더 큰 "광명체", 달은 더 작은 "광명체"로 불렸는데, 이는 실제적인 크기와 그들이 하는 역할 모두에 반영됩니다. 해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천체입니다.

성경은 해와 달이 여러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에는 네 가지 기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씨가 연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가장 분명한 것은 빛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했듯이 해가 실제로 빛의 근원이고 달은 단지 햇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을 창조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간결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문장 중 하나가 바로 그분께서 “**또 별들을 만드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드렸듯이,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은 존재하는 별의 수를 정확하게 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관측할수록 더 많은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주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의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존재하는 별의 수를 추정하자면 10의 22 제곱, 즉 1 뒤에 0이 22개 붙은 숫자입니다! 저처럼 수학에 약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한 가지 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편 147 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사편 147:4)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별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각각의 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너는 제인이고, 너는 스티브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저기 작은 별은 밥이라고 부를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모든 일을 보시고 좋다고 선언하셨고, 넷째 날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섯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Day 5

On day number 5 God turned His attention back to the Earth. As you will recall He had created the waters or seas along with the firmament (the extended sky) back on day 2. Now it was time to fill those spaces. It's worth emphasising God's desire to see spaces filled. He doesn't like emptiness. The heavens should be filled with stars. And not just a few but trillions. The same principle applies to the seas and the sky.

God filled the seas with an abundance of marine creatures. Sharks, whales, cuttlefish, squid, crabs, seals, seahorses, manatees, turtles, the Loch Ness monster (probably a plesiosaur) along with fish of all shapes and sizes. As I pointed out last time God delights in variety. There are around 540 different species of shark, 46 species of sea horse and 33 different species of seal for example.

The same approach regarding abundance applied to the air. God created a vast array of flying creatures to fill the air. From birds to bats, to now extinct flying reptiles to flying insects such as dragonflies, hornets and flies.

Again God was pleased with His work. He blessed these living creatures and commanded them to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He wanted them to find a suitable mate, settle down and make more of their kind. This brought to an end day five.

God's work of creation is nearly complete. It will require just one more day of creation. What happens on day 6 will be the subject of today's sermon.

다섯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은 다시 땅으로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물을 분리하여 공창(넓은 하늘)을 창조하셨고, 이제 그 공간들을 채울 차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간을 채우기를 원하시는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어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주를 별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몇 개 만이 아니라 셀 수 없을 만
□ □□□ □□□□ 바다와 하늘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풍성한 해양 생물로 채우셨습니다. □□, 고래, 오징어, 갑오징어, 게, 물개, 해마, 매너티, 거북이, 네

스호 과물(아마도 플레시오사우루스일 것입니다)을 비롯하여 온갖 모양과 크기의 물고기들이 가득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다양성을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 540 종, 해마는 46 종, 물개는 33 종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에 대한 이러한 원칙은 하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득 채울 수많은 날아다니는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새부터 박쥐, 지금은 멸종된 날아다니는 파충류, 그리고 짐자리, 말벌, 파리와 같은 날아다니는 곤충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 사역에 만족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생명체들을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적합한 짝을 찾아 정착하고 각각의 종류대로 더욱 번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으로 다섯째 날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단 하루만 더 남았습니다. 여섯째 날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24 Then God said, “Let the earth bring forth the living creature according to its kind: cattle and creeping thing and beast of the earth, *each* according to its kind”; and it was so.

As the work of creation draws to a close God turns finally to filling the land. The air and sea are now full of living things. It's time now to populate the earth with “living creatures” (*nephesh chayyah*). Now you might stop me at this point and highlight the fact that God had already filled the earth with “living” plants and trees. The bible however makes an important distinction between plant and animal life. Animals and human beings possess a consciousness. Plants and trees do not have this. This makes us, and not them “living creatures” from a biblical standpoint.

You will note here that the earth itself is to bring forth living creatures. On this occasion God didn't create from nothing, but instead caused the living creatures to “come out” of the earth. There has I am sure you can imagine been a long-running debate surrounding exactly what mechanism God used to do this. Since no answer has been provided by God in scripture we will have to be content with just knowing that the animals (and us) have some connection or affinity with the earth.

Once again we are told that each living creature was to reproduce after its own kind. As I have said on a number of occasions God did not choose to use macroevolution to create different kinds of animals. Animals of the same kind reproduce and create offspring that looks like them.

A good way to illustrate this is to take the canid or “dog” kind. Included in this family are 14 genera and 34 species (according to scientific classifications). Included in the family are coyotes, wolves, foxes, dingoes, jackals and of course domesticated dogs of all shapes and sizes. You can see from the images on the screen that they share many common characteristics. Allow me for a moment to get highly technical. At the one end they have a “bitey” part and, at the opposite end the wagging part. This is because they are the same kind of creature. It may be hard to believe that a Tea cup Chihuahua is in the same family as a grey wolf but it's true. I can prove it.

In the late 1990s in Germany they ran some interesting experiments. They mated a female wolf with a large male poodle. The couple met apparently in a Berlin nightclub. The puppies that were produced looked very similar to each other. They had genetic information from both parents and resembled as one might expect a mix of a wolf and a poodle. However when the puppies were allowed to mate (inbreed) with each other the results were much more interesting.

The second generation of wolf poodle genetic mix produced more noticeable distinctions. The puppies were either more wolf like in appearance and nature (somewhat aggressive), others that were distinctly poodle and some that were a clear mix. It proves that the poodle and the wolf are the same kind. The wolf and poodle could mate from here on into eternity and would never produce a dolphin. It also means that Noah only had to take two canid kinds on the ark. He didn't need two wolves, two jackals and two coyotes. Anyway back to verse 24.

The living creatures that God produced were categorized into three distinct groups. The word “cattle” (*behemah*) refers not only to cows (bovines) but to domesticated animals in general. So dogs, cats, sheep, horses and oxen for example. The “Creeping things” (*remes*) refers to reptiles and amphibians that creep or crawl along the ground. Often insects which creep or crawl along the ground are also included here. However since many insects species can fly they were created along with the other flying things on day five. The “beasts of the earth” (*chayyah*) is at times used to describe domesticated beasts, but more likely here refers to “wild animals.” We are speaking here of animals that cannot be domesticated or tamed by man. Creatures like the big cats, rhinos, kangaroos and giraffes.

Included in this group of wild animals would be what today we term dinosaurs. The word dinosaur meaning “terrible lizard” was coined by Richard Owens in 1842. Prior to this time these large and small reptiles went by a variety of different names. Yes, I know that every school textbook you study tells you that dinosaurs became extinct millions of years before humans ever came on the scene. Dinosaurs disappeared 65 million years ago and the first humans appeared 300,000 years ago. This is simply a lie. Humans and these at times large (but not always) reptiles co-existed. Imagine seeing a triceratops on your way to work! Remember that at the time of the creation all creatures were vegetarian (Gen 1:29-30). Adam wasn't sneaking around the garden trying to avoid being lunch for the T-Rex!

24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 나랴

창조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하나님은 마침내 땅을 채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공중과 바다는 생명체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땅을 “생물 living creatures” (*nephesh*)로 채우실 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셋째 날에 땅을 “살이있는” 식물과 나무로 채우셨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식물과 동물을 중요한 기준으로 구분

합니다. 동물과 인간은 의식 consciousness 이 있지만, 식물과 나무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식물과 나무는 “생물 living creatures”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땅 자체가 생물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 명체가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 (그리고 인간)이 땅과 어떤 연결고리나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생물은 그 종류대로 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거시진화 macroevolution 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종류의 동물들이 번식하여 자신과 같은 종류의 자손을 생산합니다.

이를 잘 설명하기 위해 개과 동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과에는 14 개 속, 34 종 과학적 분류에 따르면이 포함 됩니다. 코요테, 늑대, 여우, 덩고, 자칼 그리고 온갖 종류의 집에서 기르는 개들이 이 과에 속합니다. 화면의 이미지를 보면 이들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쪽 끝에는 무는 부분이 있고, 반대쪽 끝에는 흐느는 꼬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같은 종류의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티쿱 차오와가 회 □ □□□ □□ □□ □□□□ □□ □□ □□□ □□ □□□, 사실입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1990 년대 후반 독일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암컷 늑대와 덩치 큰 수컷 푸들을 교배시켰습니다. 이 둘은 베를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태어난 강아지들은 서로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부모 양쪽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늑대와 푸들의 혼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강아지들을 서로 교배시켰을 때(근친교배)

훨씬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세대의 늑대-푸들 유전자 혼합에서는 더욱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강아지들은 외모와 성격이 늑대와 더 비슷했고(다소 공격적임), 어떤 강아지들은 푸들의 특징을 뚜렷하게 보였으며, 또 어떤 강아지들은 혼합된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푸들과 늑대가 같은 종류임을 증명합니다. 늑대와 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배할 수 있지만, 절대 돌고래가 태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은 노아가 방주에 두 종류의 개과 동물만 태우면 됐음을 의미합니다. 늑대 두 마리, 자칼 두 마리, 코요테 두 마리를 각각 태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다시 24 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은 세 가지 서로 다른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가축cattle"(behemah)은 소(소과 동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길들여진 동물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개, 고양이, 양, 말, 소 등이 있습니다. "기어 다니는 것들 Creeping things" (remes)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파충류와 양서류를 말합니다. 종종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곤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많은 곤충 종은 날 수 있기 때문에 다섯째 날에 다른 날아다니는 생물들과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땅의 짐승beasts of the earth" (chayyah) "은 간혹 길들여진 짐승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야생 동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동물입니다. □ □□□□ □ 물, 코뿔소, 캥거루, 기린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야생 동물 그룹에는 오늘날 우리가 공룡이라고 부르는 동물들도 포함됩니다. "공룡dinosaur"이라는 단어는 "무시무시한 도마뱀terrible lizard"이라는 뜻으로, 1842년 리처드 오웬스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크고 작은 파충류들을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는 모든 교과서에는 공룡이 인류가 나타나기 수백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사라졌고, 인류는 30만 년 전에 나타났다고 하죠.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인류와 이 큰 형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파충류들은 공존했습니다. 출근길에 트라케리톱스를 마주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창조 당시 모든 생물은 초식동물이었음을 기억하세요(창세기 1:29-30).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잡아 먹히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 다니지 않았습니다!

25 And God made the beast of the earth according to its kind, cattle according to its kind, and everything that creeps on the earth according to it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In the previous verse God had commanded that the earth produce all manner of living creatures. Here he executed the command and they all came up from the earth. It's worth pausing at this point to again highlight the amazing wonder and diversity of the living things on this planet. We are surrounded by such an array of marvellous and interesting creature.

The creation also points to a God not only of immense creative power, but also one of joy and humour. We often picture God as being rather stern and serious. He can be both of these things, but He is also fun-loving and playful. I mean take the giraffe. It's an odd and ungainly looking thing, it's almost comedic to look at, but it thrives in the proper setting. Or what about the duck-billed platypus. What a curious creature that is. Its part duck, part beaver and part otter. It possesses webbed feet like a duck, lays eggs like a bird but is a mammal. I think God chuckled when He created the platypus. Or what about these other fascinating animal facts.

Did you know that sea otters hold hands (paws) whilst sleeping. Sometimes they will even bind themselves together with seaweed. They do this so they don't drift apart whilst their asleep.

Did you know that dolphins give themselves and each other names.

Every dolphin its own signature sound. When their friends call them they use this unique tag to identify who they are addressing.

Did you know that rats giggle when they are tickled. Unfortunately humans cannot hear the sound because it is at a frequency we cannot detect. And finally did you know that kangaroos cannot move backwards. Their long tails make this impossible. They can only ever move forward. It means that they are not very good at fencing. See, you never thought you'd learn so many interesting things at church today.

When all the animal kinds were created God looked out and was pleased with what He had done. It

was all good. There just one more thing to do before He could sit down and put His feet up! The final thing was to place the cherry on the top of the creation cake. Let's look at that now.

25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가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4 절에서 하나님은 땅이 온갖 생물을 내도록 명하셨습니다. 25 절에서 하나님은 그 명령을 실행하셨고, 모든 생물이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놀라운 다양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경이롭고 흥미로운 생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력 뿐만 아니라 동시에 즐거움과 유머를 지니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엄격하고 진지한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도 있지만, 동시에 유쾌하고 장난기 넘치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기린을 생각해 보세요. 기린은 이상하고 어색하게 생겨서 거의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적절한 환경에서는 잘 살아갑니다. 오리너구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신기한 생물입니까? 오리, 비버, 수달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처럼 물갈퀴가 있고, 새처럼 알을 낳지만 포유류입니다. 하나님은 오리너구리를 창조하실 때 아마 즐겁게 깰깰거리셨을 것입니다. 다른 흥미로운 동물들은 어떠세요?

해달은 잠을 잘 때 서로 손을 잡고 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때로는 해초로 몸을 묶기도 합니다. 잠자는 동안 서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죠.

돌고래는 자신과 다른 돌고래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모든 돌고래는 자신만의 고유한 소리를 냅니다. 친구들이 어떤 돌고래를 부를 때 그 돌고래의 특정한 소리를 내면서 자기들이 누구를 부르는지 알려줍니다.

쥐는 간지럼을 타면 깰깰거린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안타깝게도 사람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주파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캥거루는 뒤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긴 꼬리 때문에 뒤로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펜싱을 잘 하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배우게 될 줄은 몰랐죠?

모든 동물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에 만족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기 전에 할 일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품에 화룡점정을 찍을 차례였습니다. 자, 이제 살펴볼까요?

26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ccording to Our likeness; let them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over the birds of the air, and over the cattle, over all the earth and over every creeping thing that creeps on the earth.”

The creation week now reaches its breathtaking climax with the creation of human beings. We are the crowning achievement of God's work. Whales, gorillas, dinosaurs, eagles and iguanas were all good but God had saved the very best thing to last.

Given the magnitude of this act some kind of consultation that was not previously required was warranted. One commentary I read described it as God coming together in “solemn deliberation.” The God-head gathers to “discuss” this essential part of creation. We see this evidenced in the phrase “Let Us...” This is a Hebrew plural. The question raised here is why does God speak of Himself in the plural form. Many suggestions have been put forward over the centuries. The following three are the most commonly offered.

First, God may be referring to Himself and the angels. This however seems highly unlikely. Angels are presented in scripture as being servants and messengers and not as creators. Also angels whilst a special part of God's creation are NOT made in God's image as we are. We can therefore dismiss this explanation.

Second, this could be what scholars call a plural of self-exhortation or self-encouragement. This is also at times referred to as "the royal we." It is something we see used by human kings and rulers when making proclamations or decrees. This would mean that God is speaking only here of Himself.

Third, and what I consider to be the best answer is that the use of the plural form means we are being given a glimpse of the triune God-head in operation. As scripture unfolds this reality becomes clearer. So what we are reading here is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Spirit in conference.

Scripture tells us that all three members of the trinity were present and active at creation. Genesis 1:2 describes the Spirit of God hovering over the waters, and John 1:1–3 reveals that the Word, Christ, was active in the creation of all things.

So God desires to make "man." Some feminists get excited here and object to the idea that "women" are not mentioned. It is evidence they claim that the bible is misogynistic. A little time spent in study can soon dispel this delusion. The word "man" used here is the Hebrew word (*adam*). The word appears around 520 times in the Old Testament. It comes from the root *adamah* which means "ground, soil" or "earth." Depending on the context it may mean a single "man" but more generally means "mankind," a "human being" or the "human race."

So literally God is saying let us make human beings (male and female). This is also additional proof that human being did not descend from primitive ape-like creatures.

We have an entirely separate line of ancestry than the animals. Your great, great, great-grandfather was not swinging through the trees! Unless of course he fancied himself as a Tarzan imitator.

The next thing we come to is the quite frankly extraordinary statement that God is intending to make us in His **image** or **likeness**. What does it mean to be made in the image of God? Let us first dispel the idea that some people have that we resemble God in physical appearance. God is spirit, He exists without the need for a physical body. We, by contrast are material beings (though we do possess an immaterial soul).

When God says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fter our likeness He means that He plans to create a creature similar to Himself. Both the Hebrew word for image (*tselem*) and for likeness (*demut*) refer to something that is similar BUT not identical to the thing it represents. Which brings us neatly on to the question of how we are similar to God.

I'm sure you would agree that there is something that separates us from the other creatures on this planet. They may have intelligence, the ability to communicate in a limited way and even have a degree of ingenuity of creativity but they are not at the same level of human beings. This is because God endowed human beings with a certain kind of awareness. It is an awareness which animals, birds and fish were not given. We, and not the animals are made in God's image and likeness. So in a similar way to God we possess the capacity for reason, morality, language, personality, and purpose. Like God, we have the capacity to experience and understand love, truth, freedom, free will and beauty. This is part of what it means to be made in God's image.

We then find out that God has a particular purpose in mind for human beings. The other creatures are made for God's pleasure and our enjoyment. But human beings were designed with a specific task or job in view. As I mentioned to you before we are at the top of the created order. Being in this position comes with certain duties and responsibilities. God has given us **dominion**, or more simply the right to rule over this earth. This mandate extends over the animals, birds, fish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God rules and reigns over all, but He hands over to us the responsibility to rule as His earthly representatives. So in this way we see another similarity between God and human beings. We both rule and manage.

As I noted a moment ago duty and responsibility go hand in hand. God expects us to manage and rule His creation in a careful, considerate and responsible way. We are to be good stewards over what God has given us. In practical terms this means not unnecessarily polluting the rivers and seas.

Disposing of our waste properly. Of trying, where possible to preserve and protect the habitats of endangered species. And in general terms of thinking more carefully about how we use the natural world.

I think the cultural apologist Francis Schaeffer neatly captured how we should balance our desire to steward well with the proper application of the dominion mandate. Schaeffer gives the example of a tree but the principle could be applied in other areas equally well.

“Only the Christian has the proper perspective on a tree. He respects it as a tree, created by God. He therefore does not condone chopping it down just for the sake of wantonly chopping it down. However, he is also free from pagan ‘sacred grove’ taboos about nature, so he is quite relaxed about chopping it down to fulfil his need to build a house.”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조 주권은 이제 인간 창조라는 놀라운 절정의 순간에 이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 걸작입니다. 고래, 고릴라, 공룡, 독수리, 이구아나 모두 좋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훌륭한 것을 마지막에 남겨두셨습니다.

이 행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전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일종의 협약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읽은 한 주석에서는 이를 하나님께서 "엄숙한 숙고"를 함께 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의 이 절정 부분을 함께 "논의"하셨습니다. "**우리가.. Let Us...**"라는 구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복수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수형으로 표현하실까요? 수 세기 동안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세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과 천사들을 함께 언급하시는 것이다. 이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은 창조자가 아니라 시종드는 자들 servants 과 사자 messengers 로 묘사됩니다. 또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지만,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둘째, 이것은 학문적 용어로 자기 격려 또는 자기 권면의 복수형이다. 때로는 "왕인 우라...the royal we..."라고도 합니다. 인간 왕이나 통치자들이 포고령이나 칙령을 발표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견해는 하나님 자신만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셋째, 제 생각에 가장 타당한 설명은 복수형의 사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개됨에 따라 이 진리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대화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의 세 위격 모두가 창조 때 함께 계셨고 역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 장 2 절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움직이셨다고 묘사하며, 요한복음 1 장 1-3 절은 말씀 the Word 이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man"을 창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여기서 "여성 women"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성경이 여성혐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연구해 보면 이런 오해는 금방 풀립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람 man"은 히브리어 단어 (adam)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 약 520 번 나옵니다. 어근은 "땅 흙" 또는 "대지"를 의미하는 adamah 에서 유래했습니다. 문맥에 따라 한 사람 single man 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일반적으로는 "인류 mankind", "인간 human being" 또는 "인류 전체 human race"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인간(남자와 여자)을 만드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인류가 원시 유인원과 같은 생물에서 진화하지 않았다는 추가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동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조할아버지는 나무 사이를 오가며 나무를 타고 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분이 타잔 흉내를 내고 싶어 하셨다면 모를까.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 image** 대로, 즉 그분의 **모양 likeness** 대로 만드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우리가 외모적으로 하나님을 닮았을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육체 없이 존재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입니다(비록 우리에게 비 물질적인 영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자"는 말씀은 그분과 비슷한 피조물을 창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형상(*tselem*)'과 '모양(*demut*)'의 의미는 상대방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유사한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 지구상에 사는 다른 생물들과 우리 인간을 구분 짓는 무언가가 있는데 동의하실 것입니다. 다른 생물들도 지능이 있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독창성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으나, 인간과 동등한 수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종류의 의식(*awareness*)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동물, 새, 물고기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의식입니다. 동물이 아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이성, 도덕, 언어, 인격, 그리고 목적을 기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 진리, 자유, 자유의지, 그리고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생물들은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특정한 사명 또는 역할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창조 질서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특정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릴 권한**(*dominion*), 즉 이 땅을 다스릴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 권한은 동물, 새, 물고기, 그리고 자연환경에까지 미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지만, 그분의 지상 대리인인 우리에게 다스릴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유사점입니다. 그분과 우리는 다스리고 관리합니다.

의무와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분의 창조물을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다스리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steward)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강과 바다를 불필요하게 오염시키지 않고,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서식지를 가능한 한 보존하고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해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문화 변증기인 프랜시스 쉬퍼는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열망과 잘 다스리라는 명령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쉬퍼는 나무를 예로 들었지만, 이 원칙은 다른 영역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직 만민이 나무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무로서 존중한다. 그러므로 그는 단지 나무를 베어버리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나무를 베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연을 대하는 이교도들의 '숲을 신과 같이 여기는 미신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집을 짓는데 나무가 필요해서 나무를 베는 것에 대해 제약을 느끼지 않는다."

27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God created man according to His plan as described in the previous verse. The concept of man being created in the image of God is repeated here to give emphasis to this unbelievable reality. I also want you to note that a plain reading of the text suggests that God created man fully formed. We were created in one single day. We most definitely did not evolve gradually over millions of years of progressive evolution. An idea captured in the popular idiom, "From the goo to the zoo to me and you." It's a nice catchphrase that trips neatly off the tongue but in reality it's complete nonsense.

To demonstrate my point let's speculate a little about the human eye. Have you ever paused to think about what an amazing thing this is. Of all the parts of the human body, none is more awesome and wonderful than the human eye. The human eye possesses 130 million light-sensitive rods and cones that convert light into chemical impulses. These signals travel at a rate of a billion per second to the brain. It may be just one small part of our bodies but imagine life without colour, without clarity or without sight at all. How did the human eye come about?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evolution of a fully functioning human eye would require at least 40 different stages of evolution. So to put that into perspective from stages 1 to 39 you have an eye which doesn't function as an eye. What possible benefit is this to the "evolving" human being. The mathematician D.S. Ulam sums it up nicely.

It would be highly improbable for the eye to evolve by the accumulation of small mutations because the number of mutations must be so large and the time available was not nearly long enough for them to appear. (Cited in Johnson, Philip "Darwin on Trial"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93)

I can tell you exactly where the human eye came from. Are you ready? It came perfectly formed and able to be used from the very moment God created it.

We are then informed that God made human beings male and female. This means that both sexes bear the divine image and likeness of God and both sexes are given the dominion mandate. Women are never to be considered inferior to men. They are to be treated as equals and afforded honour and respect because they equally bear God's image. The later assignment by God of different roles for the husband and wife in the family does not detract from the woman's value or importance in God's sight.

Let us read on.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앞 절에 묘사된 대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이 다시 반복되는 이유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한 형태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단 하루 만에 창조되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흙탕에서 동물원을 거쳐 지금의 나와 너 From the goo to the zoo to me and you "라는 흔한 관용구처럼 말 이죠. 듣기에는 좋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간의 눈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이 얼마나 놀라운 기관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체의 모든 부분 중에서 눈만큼 경이롭고 놀라운 기관은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빛을 화학적 신호로 변환하는 1 억 3 천만 개의 빛에 민감한 막대 세포와 원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신호는 초당 10 억 개의 속도로 뇌에 전달됩니다. 눈은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 선명함도 없고, 이에 시력도 없는 삶을 한번 상 ◻◻◻◻. 인간의 눈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완벽하게 작동하는 인간의 눈으로 진화하려면 최소 40 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1 단계부터 39 단계까지는 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 진화하는 인간에게 무슨 이점이 있을까요? 수학자 D.S. 울람은 이를 다음과 같이 잘 요약했습니다.

눈이 연속적으로 ◻◻◻◻ 작은 돌연변이를 거쳐 진화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연변이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야 하는데 그런 돌연변이들이 ◻◻◻◻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필립 존슨, 『다윈의 재판』(일리노이주 다우너스 그로브 인터바시티 출판사, 1993)에서 인용)

인간의 눈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그 순간부터 완벽한 형태로, 작동 가능한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니고 있으며, 통치권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여성은 결코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동등하게 대우받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주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성의 가치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28 Then God blessed them, and Go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over the birds of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s on the earth.”

As you will remember from day five of creation God blessed the creatures of the sea and air. The blessing contained the order to reproduce and fill the space God had given them. This same command is given to human beings. They are literally to get together and make babies. I spoke in a previous sermon about what a great blessing or gift children are. God is not worried about overpopulation as some are today. The more children one has the greater the blessing one receives.

This means by implication that sex and sexual attraction are good things when expressed within God's boundaries.

The sexual act is only permitted by God within the union of marriage (one man and one woman). But within this union it is good and positive thing. This is not to claim that procreation is God's only purpose for the sexual act. God designed sex and made it pleasurable so that it cements the marriage bond. It acts as the glue that keeps a couple together. It is God's desire that marriages stay strong and healthy. He knows that both a husband and a wife are needed to successfully raise children. God did not make men or women emotionally, spiritually, or physically capable of raising children without a marriage partner. This is why single parents so often struggle.

We should also not understand what we read here as a command for every human being to produce as many children as possible. Some people due to circumstances, or health issue are unable to reproduce. We should not therefore look down upon, or consider such people inferior. They should not be judged because they are disobeying God's command to reproduce. Rather we should see God's command here in Genesis as a cultural and not an individual mandate. As a culture you should promote and encourage the importance of marriage and families.

I have to confess that these days I am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the way our culture looks at marriage and children. Many young people have little or no desire to marry and have families. They see no benefit to settling down and living what they see as a “boring” life. It's common for people to live together for many years, often permanently without ever formally getting married. Couple are also increasingly delaying having families. The great danger in this especially for women is that the fertility clock is always ticking. If you are delaying marriage to your early 30s and hoping to start a family in your mid 30s your odds of ever having children are massively reduced. I have seen research claiming by as much as 50%. Let me restate that shocking statistic. If a woman waits until after the age of thirty, the odds of her ever being a mother are 50-50. That's certainly something to think about as we raise our daughters. Anyway back to the text.

Again we see a restatement of God's command to subdue or bring under control the earth. We are called upon to exert command or control over the animals, birds and fish. This would require Adam and Eve and the generations who followed to acquire knowledge so they could master their environment. With this knowledge they would be able to bring all its diverse elements into the service of the human race. Over time this would include animal husbandry, farming, agriculture, building and land management.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 5 일째에 하나님께서 바다와 공중의 피조물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에는 번식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공간을 채우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명령이 인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인간은 서로 연합하여 후손을

□□□□□. 저는 이전 설교에서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선물인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인구 과잉을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성과 성적 매력이 좋은 것임을 암시합니다.

성행위는 오직 결혼(한 남자와 한 여자)을 통한 연합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의 성행위는 선하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행위의 유일한 목적이 출산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시고 즐거움을 허락하시어 결혼의 유대를 굳건히 하도록 하셨습니다. 성은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혼 생활이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가 필요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자 또는 여자가 배우자 없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정서적, 영적, 육체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편부모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많은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명령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열등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출산 명령을 불순종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라 문화적인 명령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과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장려하고 고취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결혼과 자녀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염려가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에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장차해서 사는 삶을 "지루하다"고 여기고 아무런 유익을 찾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수년 동안 심지어는 평생 동안 동거하는 것이 흔합니다. 또한, 부부들은 점점 더 자녀를 갖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가장 큰 위험은 출산 가능 연령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30 대 초반까지 결혼을 미루고 30 대 중반에 가정을 꾸린다면, 아이를 가질 확률은 극히 낮아집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최대 50%까지 낮아진다고 주장합니다. 이 충격적인 통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성이 30 세 이후에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가질 확률은 50 대 50 입니다.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 새, 물고기를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 후손들이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자식을 습득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자식을 바탕으로 그들은 세상의 다양한 요소들을 인류에게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축 사육, 농업, 건축, 토지 관리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29 And God said, "See, I have given you every herb *that* yields seed which *is* on the face of all the earth, and every tree whose fruit yields seed; to you it shall be for food. 30 Also, to every beast of the earth, to every bird of the air, and to everything that creeps on the earth, in which *there is* life, I have given every green herb for food"; and it was so.

Do we have any vegetarians listening?

Over the past few years I've certainly cut down on my meat consumption. But the thought of never eating a nice steak or hamburger again. How depressing! Vegetarians however would have been right at home in the Garden of Eden. Let me explain why.

As we have seen God gave mankind the command to have dominion over the animals with which he shared the earth. There was however one major limitation in this exercise of authority. Man could play with, ride, talk to, pet, stroke and admire all of the creatures but he could not eat them. At this point in time both human beings and animals were limited to a strictly vegetarian diet. Rumour has it that the McDonald's in the Garden of Eden had to shut down! Later, following the flood this prohibition against eating meat was lifted (Gen 9:3).

So at his time it was a diet of plants, seeds, vegetables and fruits for all living things. This meant of course that there was no animosity, fear, killing and death present. Everyone was friends with everyone else. The animals were not preying upon one another. The tigers happily played with the rabbits, the eagle was friends with the sparrow and the great white shark allowed the little seahorse

to rest in its open jaws. It also meant that animals at this time had no fear of humans.

Some have speculated as to how far this diet extended. Were humans permitted to eat honey or drink milk for example? Since these things if done sensibly do not being about animal death it seems possible. Others argue that since insects are not actually classified as “living creatures” were they on the menu. Quite possibly they were but this is only speculation.

Let us conclude our study for today by looking at the following verse.

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시니라

혹시 여기 채식주의자가 있나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고기 섭취량을 확실히 줄였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스테이크나 햄버거를 다시는 못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네요! 하지만 채식주의자라면 에덴동산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의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한 가지 중요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모든 동물과 함께 놀고, 타고, 이야기하고, 쓰다듬고, 감탄할 수는 있었지만,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당시 인간과 동물은 모두 엄격하게 채식만 허용되었습니다. 에덴동산의 맥도날드가 문을 닫아만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대홍수 이후에는 육식 금지령이 해제되었습니다(창세기 9:3).

그래서 창조 당시 모든 생물은 식물, 씨앗, 채소, 과일만 먹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적대감, 두려움, 살육, 죽음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서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동물들은 서로를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토끼와 즐겁게 놀았고, 독수리는 참새와 친하게 지냈으며, 백상아리는 입을 벌려 작은 해마가 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는 또한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식단이 어디까지 가능했는지 궁금해 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꿀을 먹거나 우유를 마실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일들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아닌 한, 현명하게 행해진다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곤충이 "살아있는 생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식단에 포함되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1 Then God saw everything that He had made, and indeed it was very good. So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sixth day.

Verse 31 brings to a close the events of the sixth and final day of the creation week. God surveys all of His work and declares it to be VERY GOOD. Previously God had just said that things were “good.” The world on day six was perfect. All of this is in harmony with God's character. He always and only does what is very good. This is because lest we ever forget, He is a good God.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see what God did on the seventh day.

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31 절은 창조 주간의 여섯째 날이자 마지막 날에 일어난 사건들을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전에는 단지 모든 것이 "좋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의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오로지 매우 좋은 일만 행하십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어떤 잣대로든 다른 사람들을 낮게 평가하고 열등하게 대한 적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복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모든 인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도록 노력합니다.

2 God is our good and merciful provider

As the creation week came to a close God declared it all to be very good. The earth was now filled with a whole array of marine, bird and animal life. The ground was covered with plants and trees that provided an abundance of things to eat. It was a perfect world. It was perfect because God knew and provided what the creation needed. Today that perfect world exists in a fallen state. Man's sin and the curse it brought meant that life is not how God intended.

God, however forever remains our provider. Our refrigerators and cupboards are full of His bounty. He sends the rain that waters the fruits and grains we need. How often we take His goodness for granted. Forgive us Father we pray for failing to properly appreciate how much you give us.

And best of all God provided what we need to resolve the greatest of all human problems. The problem of sin. He sent His precious Son the Lord Jesus Christ to bear our sins upon the cross. When we confess and repent of our sins, and then place our faith and trust in Christ we are made righteous in God's sight. Our saviours precious blood provides us with the covering to come into God's holy presence.

We thank you, Lord for always being our loving and merciful provider.

2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고 자비로운 공급자입니다

창조 주기가 끝나갈 무렵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구는 온갖 종류의 바다 생물 새들 그리고 동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땅은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식물과 나무들이 넘쳐 났습니다.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완벽했습니다. 오늘날 그 완벽했던 세상은 타락한 채로 존재합니다.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저주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모습과는 다른 삶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입니다. 우리의 냉장고와 수납장은 그분이 베풀어주신 풍성한 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과일과 곡식이 자라도록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분의 선하심을 당연하게 여기는지요 아버지,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귀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가 우리를 덮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언제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